

하나님의 손끝

* 9/29 (화) ② 여호수아 6-8장

1-12장 약속의 땅 점령

- 1-2장 부르심, 준비들
- 3-5장 도강, 결단의식
- ▶ 6-8장 중부 가나안 정복
 - 9-10장 남부 가나안 정복
 - 11장 북부 가나안 정복
 - 12장 승전 회고, 요약 논평

13-21장 땅 분배

- 13장 땅 분배 명령-분배
- 14장 갈렙과 헤브론
- 15-17장 5지파의 땅 분배
- 18-19:48 7지파의 땅 분배
- 19:49 여호수아와 딤낫세라
- 20장 도피성
- 21장 레위지파 성읍
- 하나님 은혜에 감사

22-24장 땅 유지

- 22장 동쪽 지파 귀환과 소통 문제
- 23장 여호수아의 권고
- 24장 세겜 갱신 서약
 - 이스라엘 구원사 회고

Before 출치며 읽기

아이 성 전투의 패인은?
전투를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이 깨달은 결론은?

After 묵상하기

나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있습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좁고 깊은 골짜기로 적의 대군이 들어옵니다.

골짜기 양쪽에는 활을 든 아군이 매복해 있습니다.

적이 골짜기 한 가운데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지휘관의 <손끝>만 바라보던 그 때,
성급한 누군가 적장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빗나가고 적군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납니다.
매복 작전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전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이 그 때다, 라는 나름의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지휘관의 신호에 맞춰 움직였다면 어땠을까요?

참고도서

현대성서주석
HOW주석, WBC 주석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지휘관의 자질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지휘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또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6장),
그러나 곧 이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7장).
빛의 속도로 자행된 그들의 영적 일탈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치르는 첫 번째 전투.
하나님의 명령은 군사작전이라기보다 <제의>에 가깝습니다.
이후 전투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무기, 매복 등 현실적인 전략들을 기본으로 한 전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첫 번째 전투만 이렇듯 모호한 방식으로 치르게 하신 걸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번의 승리를 맛보았을 뿐인데도,
이스라엘은 교만과 욕망으로 즉시 진영을 더럽혔습니다.
앞으로 수 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정복한 땅과 전리품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잊게 될 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6:2).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침묵 가운데 묵상하게 하십니다(6:10).
불만과 두려움, 부정의 목소리, 선동의 목소리가 진중에서 끊깁니다.
모든 감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에 집중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째 날, 7바퀴.
머리와 마음 속, 현실세계를 가득 채운 혼돈이 제압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부여됩니다.
7일 동안 <말씀으로> 피조세계와 안식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혼돈의 이스라엘과 여리고 성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따라 멈추고 기다리는 것.
그분의 신호에 따라 그대로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됩니다.

